

“도쿄를 벗어나 마이애미로 가겠다”

클린스만 감독 “아시안컵 우승 목표”

이강철 감독 “WBC 호주전 팬들을 위해 최선” “한일전 무계감… 호주전 이긴 뒤 일본전 ‘올인’”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우리는 여길(도쿄) 벗어나서 미국 마이애미로 가는 게 목표다.”

한국 야구대표팀을 이끄는 이강철 감독이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호주와 1차전을 하루 앞두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야심찬 목표를 밝혔다.

이 감독은 8일(이하 한국시간) 일본 도쿄 도쿄돔에서 열린 대회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해 “준비를 잘해 왔다”라며 “선수들도 자신감 있게 준비했고 비장한 각오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1라운드에서 일본, 호주, 체코, 중국과 함께 B조에 편성된 한국은 9일 낮 12시 열리는 호주와 1차전이 8강 진출의 분수령이다.

이강철 감독은 “최근 호주를 상대로 8연승을 거둔 것은 생각 안 한다”라며 “자신감을 갖고 들어가는 건 좋지만, 최근 2년간(한국의) 국제대회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KBO리그를 위해서, 팬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좋은 성적을 내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호주를 상대로 방식은 절

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전력상 나와 있는 통계는 우리가 우위지만 야구는 모르는 거다”라고 말한 이 감독은 “절대 강자를 상대로 싸운다는 생각으로 임할 것이고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라고 강조했다.

첫 소집 당시부터 선수들과 자신감 있게 준비를 시작했다는 이 감독은 “분위기도 올라왔고 선수들이 즐기는 모습도 아주 좋다”라고 전했다.

우리 선수단의 전력에 대해선 “장점은 탄탄한 수비와 타격, 빠른 발과 장타력 선수 조화가 잘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한 이 감독은 “베네라와 어린 선수의 신구 조화가 잘 이뤄졌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9일 호주와 1차전을 치르고 일본은 중국과 첫 경기를 갖는다.

일본 현지에서는 정작 1차전보다 10일로 예정된 ‘한일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이강철 감독은 한일전에 관한 일본 기자들의 집요한 질문에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했지만, 이날



2023 WBC 대회가 열리는 일본 도쿄돔에서 8일 한국 대표팀 이강철 감독과 선수들이 단체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야구위원회 제공)

은 말했다.

“한일전이 갖는 무게감을 다들 알 것”이라며 “첫 경기에서 이겨야 한일전에 편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호주전을 여유 있게 이기면 일본 경기에 올인하려고 마음 갖고 있다”라고 마침내 속내를 전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의 새 사령탑 위르겐 클린스만(독일·사진) 감독이 8일 입국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이날 오전 5시 22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 땅을 밟았다.

웃는 얼굴로 입국장에 들어선 클린스만 감독은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로부터 꽃다발과 붉은 머플러를 건네받은 뒤 “대한민국 A대표팀 감독이라는 기회를 얻게 돼 매우 자랑스럽고 영광스럽다.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성공을 이어나갈 수 있게 준비할 예정”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한국 대표팀이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이 같은 성적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업무를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FIFA 기술 연구그룹(TSG)의 일원으로 차두리 FC서울 유스강화실장과 함께 한 클린스만 감독은 “차두리 코치와 함께 대한민국 대표팀의 모든 경기를 살펴봤다. 한국 축구는 지난 20~25년간, 거스 히딩크 감독 감독과 함께 좋은 팀을 건설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우승이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한국 대표팀이 카타르 월드컵에서 포르투갈 등 큰 팀을 이겼고, 과거 독일을 상대로도 이긴 경험이 있으므로 당연히 아시안컵 우승이 목표”라고 각오를 다졌다.

클린스만 감독은 9일 오후 2시 파주 NFC(축구 대표팀 트레이닝 센터)에서 진행되는 취임 기자회견으로 첫 일정을 소화하며, 이어 곧장 자신의 데뷔전이 될 3월 A매치 두 경기를 준비한다.

한국은 24일 오후 8시 울산 문수 축구장에서 콜롬비아를 상대하고, 28일 오후 8시에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우루과이와 맞붙는다.

PGA 투어 ‘최고 상금 대회’ 앞둔 임성재 “이번 주도 기대해 볼 만할 것 같다”

이번 시즌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대회 중 가장 많은 상금이 걸린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총상금 2500만 달러) 출전을 앞둔 임성재가 상위권 진입을 향한 각오를 다졌다.

임성재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개막을 앞둔 8일(한국시간) PGA 투어를 통해 “5주 연속 경기하고 있어서 조금 힘들지만, 컨디션은 괜찮다”며 “이번 주도 기대해 볼 만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임성재는 9일부터 미국 플로리다주 폰테베데라비치의 TPC 소그

래스 스타디움 코스에서 열리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 출전한다.

PGA 투어 2승을 보유한 임성재는 이번 시즌엔 세 차례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주 ‘특급 대회’인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은 공동 21위로 마친 뒤 이번 대회에 출격한다.

그는 이번 시즌 흐름에 대해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지만, 나쁘지 않은 출발을 했다. 올해 톱10에 두 번 들었고 꾸준히 톱10을 하고 있다”고 자평



하며 “이 컨디션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고 밝혔다.

TPC 소그래스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해저드가 많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상황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다. 바람이 많이 불고 상황이 어려우면 최대한 파를 지킨다는 생각으로

쳐야 안정적인 경기를 할 수 있다”며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임성재는 “모든 대회에서 그렇듯 우선 예선 통과가 목표다. 리더보드에서 좋은 위치에 있다면 상위권 진입을 노려보겠다”고 덧붙였다.

제주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확대

제주도와 양 행정시 체육회에 등록된 체육단체와 동호회를 대상으로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이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8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을 확대하고 공공체육시설 사용 시 온라인을 통해 예약 및 결제가 가능한 예약통합관리시스템 업무처리 근거 조항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행정시

체육회에 등록된 체육단체 및 체육동호회 사용료 감면 확대(당초 50% → 80%로 감면 확대) ▷병역명분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 사용료 감면 신설(50% 감면) ▷공공체육시설 예약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근거조항 마련 등이 포함됐다.

도는 2026년 전국체전 유치와 연계해 공공체육시설 확충, 기존 체육시설 개·보수 및 장애인 편의 시설 확충 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0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청 체육진흥과로 제출하면 된다.

강다혜기자 dhkang@halla.com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강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9:45 KBS 뉴스 제주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재)	6: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6:10 걸어서 세계속으로 7:00 해 볼만한 아침 M&W 1부 8:05 해 볼만한 아침 M&W 2부 9:00 KBS 아침 뉴스타임 9:20 내 눈에 콩깍지(재) 10:00 인강극장 스페셜 10:40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 1라운드 B조 호주·대한민국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마녀의 게임(재) 8:30 TV 전국시대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 특집 스포츠 매거진 스페셜 11:25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 조별리그 B조 대한민국·호주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15 JIBS 뉴스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8:50 종ын이집 9:50 SBS 뉴스 10:0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00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 조별리그 대한민국·호주	8:00 땀과 눈물 유치원 9:35 터미널 쿠마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4:45 한국의 물레길 15:05 나를 위한 매일 수업 16:25 한글문화 이야기 17:30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18:00 웅강한 소망차 레이 19:00 순간 포착, 인생
12:00 KBS 뉴스 12 13:00 KBS네트워크특선 별탈다방 13:5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4:00 KBS 뉴스 14: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14:30 밤과 후 초능력 15:00 상상꾸러기 꾸다 2 15:15 종이탑 3 15:30 액션퀀트 대모범 15:45 프리몬 원정대 16:00 사사간간 17:00 KBS 뉴스 5 17:30 탐나는 제주	12:50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 1라운드 B조 호주·대한민국 15:00 영상앨범 산 15:30 TV 유치원 16:00 누리가 잘하니 17:00 알쓸달달 개치 티니핑 17:15 꼬마공룡 크와 17:30 동진 예능 따라잡기 17:50 통영뉴스를 듣	15:25 뽀빠이 좋아! 스페셜 15:55 기분 좋은 날(재) 17:10 일터강사 다이제스트 17:30 테마여행 길 스페셜	13:00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 조별리그 대한민국·호주 15:30 생활의 달인 스페셜 16:0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재) 17:00 SBS 오 뉴스 17:35 JIBS 저녁뉴스 17:50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 조별리그 하이라이트 대한민국·호주	7:00 KCTV 뉴스 8:00 방송콘텐츠경연대회 수상자 9:30 아라개장 10:30 탐라의 뽀빠이, 귀리 12:30 배워볼까 광명중국어 14:30 남민동 고향 16:10 KCTV 다크스페셜 17:00 KCTV 뉴스 18:00 방송콘텐츠경연대회 수상자 19:00 KCTV 뉴스 20:00 아라개장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제주 19:40 한국인의 밤상 20:30 내 눈에 콩깍지 21:00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공영방송 50주년 대기획 하든 어느 한밤도 30억 년 22:50 더 라이프 23:30 KBS 뉴스라인	18:30 2TV 생생정보 19:50 태풍의 신부 20:30 홍길동전 21:50 연모 23:00 영웅 플러스	18:30 생방송 연금록 720+ 18:35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 조별리그 B조 중국·일본 22:00 MBC 뉴스데스크 22:50 2023 WBC 특집 다크 스포츠 23:50 꼭두의 계절(재)	18:50 생방송 투데이 19:50 SBS 8 뉴스 20:30 JIBS 뉴스 21:00 수학 없는 수학여행 22:3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제주CBS FM 93.3MHz 90.9MHz 7:00 김탁기의 아침뉴스 7:20 김현정의 뉴스쇼 9:00 고대 창가에 김석은입니다 12:00 CBS맞춤뉴스 14:05 송정미의 축복송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25 한민승부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KBS 064-740-7331 / ◎ MBC 064-740-2432 / ◎ JIBS 064-740-7800 / ◎ KCTV 064-741-7723 / ◎ 제주CBS 064-748-7400 / ◎ TBN제주교통방송 064-717-8114				

오늘의 운세 9일

김종상 지단(호리) 작명역학 원장
경기대 평교원 교수(010-5233-6136)

36년 하는 일이 풀리고 마음에 근심이 사라진다. 48년 귀인의 도움으로 매출이 증대되고 이익 발생. 60년 신생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생긴다. 대인 관계를 활용하라. 72년 부친이나 배우자 덕으로 내가 빛나고 명예를 얻는다. 84년 현실이 힘이 들어도 참고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게 된다.

37년 작은 이득이 있고 좋은 소식도 들려온다. 49년 문서운이 길하니 찬스가 오면 포착하라. 61년 방해자가 생기니 유언비어를 조심하고 경솔한 행동은 손해를 본다. 73년 추진업무가 지체되고 재물지출이 따르니 자금 관리 철저. 85년 취업이나 진학의 운이 길하며 생산과 활동이 늘어나 매출 증대. 이익창출.

38년 모든 일은 나눌수록 나에게 힘이 된다. 50년 신경이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송사에 유의하라. 62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다. 부부 불화. 배려하는 마음 필요. 74년 직장이나 업무에 문제가 발생하고, 하는 일이 지체되거나 다툼이 생긴다. 86년 경쟁상대가 나타나서 바쁘나 능률은 떨어진다.

39년 모임이나 친구가 나를 찾으니 외출하게 된다. 51년 여성에게 문서상 이익이, 자녀에게는 문서문제로 분주한 하루다. 63년 일이 없으면 무력감이 찾아온다. 75년 외출이나 활동성이 늘어나고 바쁘고 분주하다. 자녀 문제 걱정. 87년 뜻하지 않은 약속이 생기거나 소개팅이 있다.

40년 자녀의 집을 방문하거나 같이 갖게 된다. 52년 도와주는 만큼 돌아오니 먼저 배우는 마음이 필요. 64년 생산이 매출로 연결된다. 이익이 발생하니 적극적으로 활동하라. 76년 친구나 동료와의 만남이 있다. 무리한 언행은 화를 부르니 주의하라. 88년 마음에 여유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중요하다.

41년 수입이 늘어나고 전문적인 바쁜 일이 생긴다. 53년 새로운 구상이나 계획하는 일이 원만하게 진행되니 추진하는 것도 좋다. 65년 지나친 언행이 관계수를 부르고 업무에 지장을 주니 말조심. 77년 강한 나의 주장과 독설이 부부불화와 가정의 혼란을 가져온다. 89년 지출이 따르고 외모에 신경쓰게 된다.

42년 소송 또는 관재수가 오니 다툼, 시비는 금물. 54년 업무과다로 피곤이 누적되고 건강 악화. 66년 타자의 성향이 강해 화를 부를 수 있으며, 투기는 신중해야. 78년 추진하는 일이 지체되고 하자가 발생하니 침착하게 계획을 재수립 검토. 90년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 여유로운 마음이 필요.

43년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일로 재물이 지출되며 돈 문제로 고민을 한다. 55년 오늘 현실이 어려워도 내일을 준비하는 행동이 더 중요하다. 67년 내가 우선이며 최고의 마음은 스트레스를 준다. 배려와 양보가 필요한 때. 79년 게으름은 칭찬을 받지 못한다. 91년 투자로 사업장을 확장하려고 한다.

44년 자기고집으로 인한 재물 지출이 생긴다. 무리한 카드 사용은 자제. 56년 친구나 동업자의 다툼이 있을 수 있다. 68년 뒷사람과 다소 신경전이 생기니 자중할 것. 80년 직장이나 업무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휴식 필요. 92년 급하고 답답한 마음은 가정의 불화를 만들 수 있다. 여유있는 마음가짐이 필요.

45년 동창 또는 친목이 있거나 봉사로 기쁨을 나누면 좋다. 57년 재물 지출이 생기니 과소비는 금하고, 부부 불화하니 조금씩 자제 필요. 69년 하는 일에 권태가 온다. 81년 반값반값이 있으니 오후 늦게 약속이 생기면 정중히 거절하라. 93년 부모의 건강이나 돈 때문에 집안에 우환이 생기니 가정사에 신경써야.

46년 건강에 이상이 오니 관찰과 치아관리 필요. 58년 문서관련 업무에 하자가 발생하니 철저히 검토. 중요 계약은 다음으로 미루라. 70년 지나친 기대나 공짜는 내게 부담이 된다. 남의 것을 욕심내지 말 것. 82년 똥장갑의 도움이 있거나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이 생긴다. 94년 자만하면 되던 일도 안되는 법.

47년 답답하던 일이 풀리거나 거래상사가 있다. 59년 계획을 세우고 청산을 하고 싶어한다. 71년 한가지 일이 마무리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 것. 전문직이 필요함을 느낀다. 83년 재물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며, 몸이 늦게까지 분주하고 할 일이 많다. 95년 활동이 많아지고 몸이 사방으로 분주하다.